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수준 비교

Comparison of the Awareness Level of the Prolonged Sound Rul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이 은 선* · 석 동 일**
Eun-Seon Lee · Dong-II Se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level of the prolonged sound rul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48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1 through 6. Their awareness level of the prolonged sound rules was evaluated on reading tasks composed of 40 words and sentences. An one-way ANOVA followed by Scheffe hoc tests showed the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for the awareness level of prolonged sound rules. The younger the children, the larger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prolonged sound rules. The awareness might affect their cognitive development and a systematic instruction may be helpful especially in lower graders.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level of the prolonged sound rules at both words and sentences level. It was also found that as the age of children increases, the awareness level of the prolonged sound rules tends to increase which appeared to be completed by the 3rd grade.

Keywords: Prolonged Sound Rules, Awareness Level, Elementary Students

1. 서 론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음규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어에 대한 연음규칙 지도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어의 연음규칙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광일[1]은 문법교육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지식으로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창조적인 국어 사용능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읽기는 모든 학습의 토대가 되며, 바른 읽기는 구어 명료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음규칙이 학습된 정확한 발음습득은 자신의 의사전달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박사과정

**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요인이 된다.

읽기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글자와 말소리의 대응관계 즉, 음운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글은 자소와 음소의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연음규칙이나 된소리화 규칙 등이 있어서 문자 습득초기에 있는 아동은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연음의 사전적 의미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단자음은 모음 음절의 첫소리로, 겹자음은 둘째 자음이 모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형태소 결합에서 연음규칙이 적용될 때는 형태소의 개별 음소에는 변동이 없으나, 음절 구조에는 변함이 생긴다[2]. 즉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올 때 음절의 연결을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보는 한편, 음절연결은 음절경계의 앞뒤에 오는 소리의 울림도(sonority)에 관계된다[2].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ㄴ/ 5 도, /ㄷ/ 10 도, /ㄹ/ 6 도, /ㄱ/ 9 도, /ㄷ/ 1 도, /ㄴ/ 10 도가 되며, 1 음절 /ㄴ/, 2 음절 /ㄷ/, 3 음절 /ㄴ/에서 울림도가 가장 크므로 각 음절의 핵이 된다. 이는 음절경계의 바로 앞에 오는 소리(coda)의 울림도가 음절경계 바로 뒤에 오는 소리(onset)의 울림도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이 발음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발음될 수 있으며 연음규칙도 이러한 음절연결의 하나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음규칙은 음절연결 조건을 위배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그러한 음절연결 조건을 위배하지 않기 위함이다[3].

음절연결 조건은 CVCV 음절구조를 가진 단어가 CVC\$V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CV\$CV로 분절되는 조건으로 설명된다[4]. 예를 들면 /문어/는 [무\$너]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 13 항[5]에 의하면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 예로는 깎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씨], 낮이[나지], 꽃이[꼬치], 꽃을[꼬츄], 쫓아[쫓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덮이다[더피다] 등이 있다.

표준 발음법 제 14 항[5]에 의하면 접받침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이 경우, [스]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 예는 녀이[녀씨], 앉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뭉이[목씨], 굶이[골씨], 할아[할타], 녀을[녀츄], 읊어[을퍼], 값을[갑 쉼], 었어[엿씨] 등으로 발음된다.

이호영[6]이 제시한 연음규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태소 중성 자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조사, 접미사 등의 의존 형태소가 이어 나올 때 중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된다. 예를 들면 /밥이/ → [바비], /무릎을/ → [무르플], /밭에서/ → [바테서]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음은 실제 발음과 표기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모음과 자음체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습득이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다소 혼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어휘나 문법 수준이 높아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그 결과 읽기나 쓰기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7].

특히 문자에 노출이 되지 않은 어린 아동의 경우 자연스럽게 연음하여 발음하다가, 문자에 노출된 초기에는 연음시키지 않고 음절 단위로 끊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 토박이 화자가 학교교육을 통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획득한 언어능력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능력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1]. 이때 기초적인 문법을 토대로 한 체

계적인 연음규칙 습득이 요구되나, 구체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지침서가 미흡한 실정이다.

김태순[8]의 연구는 어말중성자음을 /ㅍ/, /ㅌ/, /ㅊ/, /ㅋ/, /ㆁ/인 단어들로 제한하였으나, 본 연구는 어말중성자음에 올 수 있는 모든 음소를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 제 13항, 14항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수준을 읽기를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국어교육 및 임상교육 현장에서 학습장애·언어장애아동을 치료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은 독립단어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은 문장내단어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초등학교 학생의 연음규칙에 대한 지도는 국어교과 영역에서 읽기,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윤혜경[9]에 의하면 한글의 읽기발달은 받침이 없는 민글자에 대해 음소와 자소의 대응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5 세 경이며 받침자는 6 세, 안 쓰는 글자까지 읽을 수 있는 완성 시기는 초등학교 2 학년 정도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은 대구광역시 J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1 학년 21 명, 2 학년 22 명, 3 학년 19 명, 4 학년 27 명, 5 학년 29 명, 6 학년 30 명으로 총 148 명으로 하였다. 2004 년 9 월 15 일에서 9 월 30 일까지였다. 한국어 발음검사[10]를 실시하여 100% 정조음하는 학생으로 하였다.

2.2 연구 설계 및 검사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수준의 정도를 독립단어와 문장내단어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중성 자음이 중화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독립단어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단어는 읽기자료의 길이에 따라 연음규칙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단어 40 개, 문장내단어 40 개를 사용하였다[부록 1, 부록 2]. 모든 단어는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단어로만 구성하였다[11]-[22].

읽기는 학생과 검사자가 마주앉은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학생에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읽기를 하도록 숙지 시켰으며, 읽기 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검사자는 독립단어와 문장 번호마다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 주었다. 독립단어 읽기를 먼저 한 후에 문장 읽기를 실시하였다.

검사지는 A4용지 한 면씩 독립단어와 문장내단어가 모두 포함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글자체는 돌음체, 글자 크기는 12로 하였다. 읽기에 대한 모든 반응은 TW-386에 녹음을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였다. 읽기에 대한 분석은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1 급 언어치료사 2 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사자간 신뢰도는 85%였다.

2.3 결과 처리

연음규칙 인식수준에 대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집단 간 차이를 SPSS 10.0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알아보았다.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실시하였다.

$$\text{정반응 수(개)} = \text{정반응 개수/총 개수(40개)}$$

3. 연구 결과

3.1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독립단어 수준 비교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독립단어 수준에 있어서 one-way ANOVA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독립단어 수준 one-way ANOVA 결과

수준	학년	N	평균(개)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독립단어	1학년	21	20.24	6.48	1.41	17.29	23.19
	2학년	22	32.55	3.81	.81	30.85	34.24
	3학년	19	37.74	2.00	.46	36.78	38.70
	4학년	27	37.81	2.09	.40	36.99	38.64
	5학년	29	38.55	1.12	.21	38.13	38.98
	6학년	30	38.40	1.71	.31	37.76	39.04
	합계	148	34.79	7.01	.58	33.65	35.93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단어 수준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평균은 1학년 20.24 개, 2학년 32.55 개, 3학년 37.74 개, 4학년 37.81 개, 5학년 38.55 개, 6학년 38.4 개로 나타났다.

독립단어 수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독립단어 수준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독립단어	집단-간	5771.11	5	1154.22	112.93	.000
	집단-내	1451.40	142	10.22		
	합계	7222.51	147			

표 2의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 유의 확률이 0.00으로 p=0.01의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년 별 독립단어 수준에 대한 정반응 개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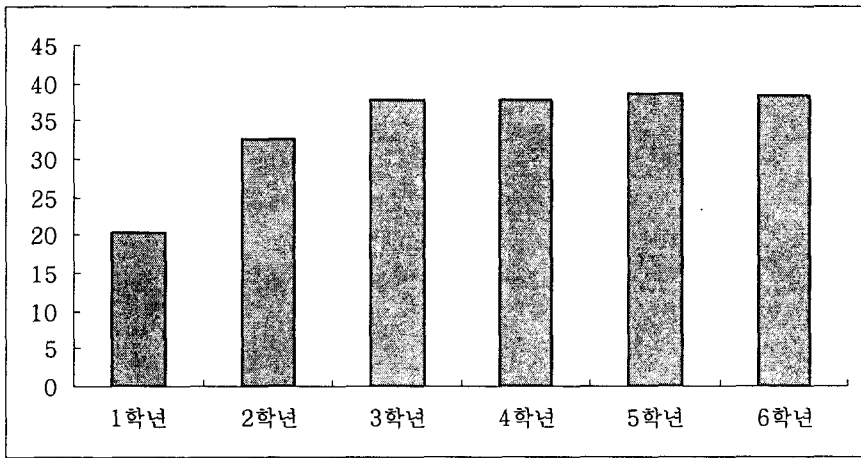


그림 1. 학년별 독립단어 정반응 개수(단위: 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학년에서 3 학년까지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컸으나 3 학년부터 6 학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독립단어 수준에 있어서 Scheffe 사후검정에 대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독립단어수준 Scheffe 사후검정 결과

	학년	N	1	2	3
독립단어	1학년	21	20.24		
	2학년	22		32.55	
	3학년	19			37.74
	4학년	27			37.81
	6학년	30			38.40
	5학년	29			38.55
	유의확률			1.000	1.000

표 3의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 0.98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3, 4, 5, 6 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3 학년부터 6 학년까지는 독립단어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3, 4, 5, 6 학년을 동일 집단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년 별 50% 이상의 오반응율을 나타낸 독립단어[부록 1]를 살펴보면, 1학년은 /집안, 연안, 참외, 샬립살이, 백악기, 산업, 수줍음, 관용, 굶은일, 적응, 군인, 인어공주, 단오, 낱알, 문안, 근육, 밑들이/이다. 2 학년은 /관용, 굶은일, 백악기, 수줍음, 관용, 적응, 낱알, 문안, 근육/이다. 3, 4 학년은 /관용/이었으며, 5, 6 학년은 50% 이상 오반응율을 나타낸 독립단어는 없었다. 특히 1, 2 학년이 50% 이상의 오반응율을 나타낸 /참외, 인어공주/를 제외한 모든 독립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적게 사용되는 저빈도 독립단어였다. 이는 어린 아동의 경우 읽기자료의 길이보다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어휘빈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발음 오류 형태는 어말종성자음이 연음규칙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고 미파음으로 발음되어 연습규칙에 어긋났다.

독립단어수준에서 학년 별 90% 이상의 정반응율을 나타낸 경우는 1학년은 없었다. 2학년은 22명 중 6명, 3학년은 19명 중 18명, 4학년은 27명 중 26명, 5학년은 29명 중 29명이었으며, 6학년은 30명 중 30명이 90% 이상의 정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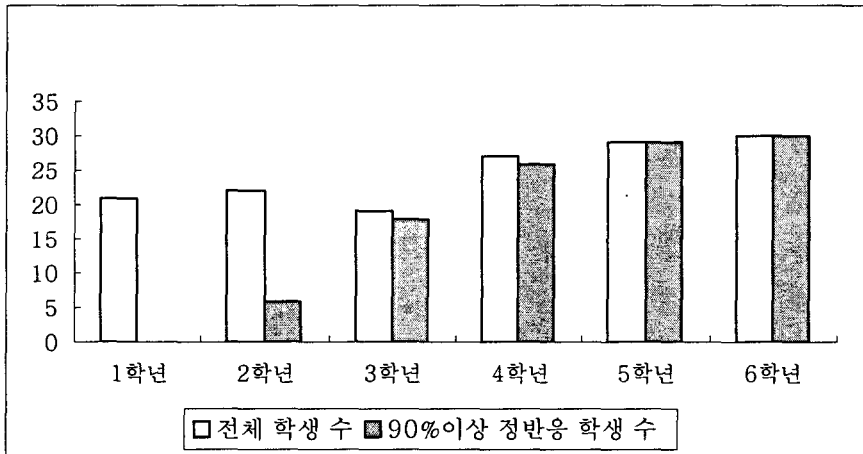


그림 2. 독립단어 수준에 대한 90% 이상 정반응율을 나타낸 학생 수(단위: 명)

3.2 초등학생의 연습규칙 인식에 대한 문장내단어 수준 비교

초등학생의 연습규칙 인식에 대한 문장내단어 수준에 있어서 one-way ANOVA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문장내단어 수준 one-way ANOVA 결과

수준	학년	N	평균(개)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문장내단어	1학년	21	18.95	9.33	2.04	14.71	23.20
	2학년	22	33.45	4.02	.86	31.67	35.24
	3학년	19	37.37	1.57	.36	36.61	38.13
	4학년	27	37.41	1.78	.34	36.70	38.11
	5학년	29	38.41	1.21	.22	37.95	38.87
	6학년	30	37.97	1.33	.24	37.47	38.46
	합계	148	34.51	7.64	.63	33.27	35.75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장내단어 수준에서 초등학생의 연습규칙 인식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1학년 18.95 개, 2학년 33.45 개, 3학년 37.37 개, 4학년 37.41 개, 5학년 38.41 개, 6학년 37.97 개로 나타났다.

문장내단어 수준의 분산분석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문장내단어 수준 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문장내단어	집단-간	6289.65	5	1257.93	77.69	.000
	집단-내	2299.35	142	16.19		
	합계	8588.99	147			

표 5의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 간 문장내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유의 확률이 0.00으로 $p=0.01$ 의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년 별 문장내단어 수준에 대한 정반응 개수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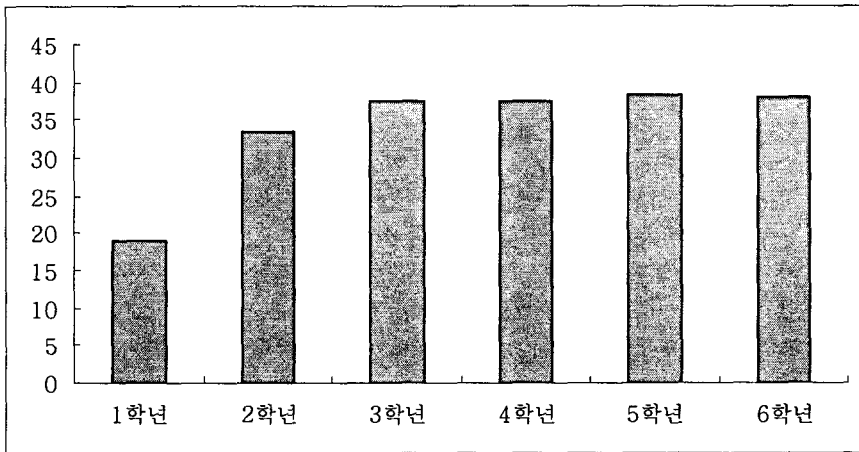


그림 3. 학년별 문장내단어 정반응 개수(단위: 개)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학년에서 3 학년까지 문장내단어 수준에 있어서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수준은 편차가 컸으며, 3 학년부터 6 학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문장내단어 수준에 있어서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에 대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문장내단어 수준 Scheffe 사후검정 결과

	학년	N	1	2	3
문장내단어	1학년	21	18.95		
	2학년	22		33.45	
	3학년	19		37.37	37.37
	4학년	27			37.41
	6학년	30			37.97
	5학년	29			38.41
	유의확률			1.0	.051

표 6의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 0.98로 유의수준 0.05에서 3, 4, 5, 6 학년은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단어 수준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문장내단어 수준에서도 3, 4, 5, 6 학년은 동일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학년 별 50% 이상의 오반응율을 나타낸 문장내단어[부록 2]를 살펴보면, 1 학년은 /굵은, 물장군을, 쫓아, 풋말을, 꽃았습시다. 햇빛을, 사흘을, 굵은, 물었습시다, 불빛이, 모래밭에, 밥맛이, 끝에, 발을, 엮었습니다. 집을, 길쇠의, 꽃이, 흠어져, 날이, 맺으면서, 그릇이, 길이/었다. 2 학년은 /햇빛을, 굵은, 불빛이, 길쇠의/, 3 학년은 /길쇠의/, 4학년은 /햇빛을, 길쇠의/였고, 5, 6 학년은 /길쇠의/가 50% 이상의 오반응율을 나타내었다.

1-6 학년이 공통적으로 오반응을 나타낸 문장내단어는 /길쇠의/였다. 이는 1 학년 교과과정에 포함된 단어이나, 일상생활에 친숙하게 사용하지 않는 저빈도 단어로 오반응율이 높았다고 본다. 이는 독립단어의 결과와 일치하며, 읽기자료 길이에 따른 영향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어말중성 자음에 위치한 겹받침 /ㄹ/, /ㄷ/, 파찰음 /ㅈ/, /ㅊ/, 기식음 /ㅍ/, /ㅌ/에서 오반응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연음규칙 인식은 읽기 자료의 길이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 및 어말중성자음에 위치한 음소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호영[6]은 형태소의 중성 자음이 /ㅍ, ㅌ, ㅋ, ㆁ, ㅈ, ㅊ/인 낱말들은 같은 환경에서 사람에 따라 방언에 따라 서로 다른 자음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립국어연구원[23]의 발음표준어권 발음 실태 조사에서 /부엌아/, /술아/, /꽃아/, /무릎아/를 [부여가], [소다/소사], [꼬사], [무르바]로 발음되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를 비표준 발음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굵은/→[굵는], /쫓아/→[쫓타], [쫓사], /햇빛을/→[해삐슬], [해삐틀], /불빛이/→[불삐시], [불삐티], /모래밭에/→[모래바세], [모래바체], 끝에→[끄세], [끄테], 길쇠의→[길씨페]로 발음한 경우 오반응 처리하였다. 그 외의 문장내단어에 대한 발음 오류 형태는 중성자음을 미파화하여 발음하여 연음규칙에 어긋나게 발음을 하였다. 문장내단어 수준에서 학년 별 90% 이상의 정반응율을 나타낸 경우 1 학년은 없었다. 2 학년은 22 명 중 9 명, 3 학년은 19 명 중 18 명, 4 학년은 27 명 중 21 명, 5 학년은 29 명 중 28 명이었으며, 6 학년은 30 명 중 28 명이 90% 이상의 정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독립단어 수준의 결과와 다소 일치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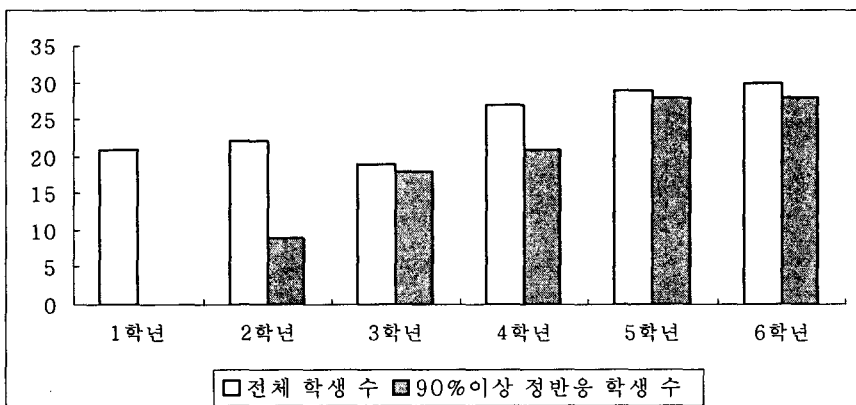


그림 4. 문장내단어 수준에 대한 90% 이상 정반응율을 나타낸 학생 수(단위: 명)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립단어 수준과 문장내단어 수준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또한 3, 4, 5, 6학년은 동일집단으로 나타났다.

독립단어 수준에서 50% 이상의 오반응율을 나타낸 단어는 /집안, 연안, 참외, 살림살이, 백악기, 산업, 수줍음, 관용, 굶은일, 적응, 군인, 인어공주, 단오, 낱알, 문안, 근육, 밀들이/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저빈도 단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린아동은 읽기자료의 길이보다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어휘 빈도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듣기와 말하기를 통한 언어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문장내단어 수준에서 50% 이상의 오반응율을 나타낸 단어는 /굶은, 물장군을, 쫓아, 꽃말을, 꽃았습시다. 햇빛을, 사흘을, 굶은, 물었습시다, 불빛이, 모래밭에, 밥맛이, 끝에, 발을, 엮었습시다, 집을, 길썬의, 꽃이, 흩어져, 날이, 땀으면서, 그릇이, 길이/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 빈도수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되며 독립단어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국어에서는 음소와 글자체계간의 자소 간 대응관계 및 해독능력이 안정적이게 되면 읽기자료의 길이, 연음규칙, 음운변동 등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선행된 과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다음 과제로의 전이가 용이해 진다. 따라서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이면 단어의 길이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독립단어·문장내단어에 대한 연음규칙 인식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 아동의 독립단어 및 문장내단어에 대한 발음오류 형태는 종성자음을 미파화시켜 발음하여 연음규칙에 어긋난 발음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연음규칙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 및 올바른 음성학적 지식에 대한 지도가 요구된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연음규칙 인식의 정도를 독립단어와 문장내단어 수준에서 읽기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단어 수준에 있어서 초등학생 학년 별 연음규칙 인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 2, 3학년의 연음규칙 인식수준은 차이가 매우 컸으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 되면 연음규칙에 대한 습득이 완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문장내단어 수준에 있어서 초등학생 학년 별 연음규칙 인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문장내단어 수준에서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완성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읽기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아동기에 갖추어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며, 학생의 학업수행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24]. 읽기는 어린 학생일수록 개인 간 차이가 크며, 인지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읽기이해는 모든 학습의 기초 활동이므로 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5]. 따라서 읽기를 통한 연음규칙 인식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가 중요하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개인간의 차이가 크며 음운규칙에 대한 수준도 차이가 난다.

장유경 등[24]에 의하면 읽기의 정규교육은 대부분의 학령기인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지만 어떤 유아들은 스스로 읽기를 터득한다. 따라서 정식 읽기 교육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문자 환경을 접하고 읽기를 학습, 경험하고 있으므로 읽기의 기초는 학령기 훨씬 이전인 영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고취되고 있음을 지지하였다.

박항아[26]에 의하면 아동 발달기에 있어서 3 세 경에 한글의 초성자음과 중성모음이 합해진 소리와 중성모음과 종성자음을 합한 소리를 탐지하기 시작하며, 초성, 중성, 종성의 음소탐지는 5세에 시작하여 7세가 되면 상당히 잘 탐지할 수 있으나 완벽하지는 않았다[24]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볼 때, 올바른 읽기를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 대응에 대한 음운인식 선행되어야 하며, 음운규칙에 대한 이해는 읽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요소이다. 또한 올바른 읽기는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쓰기 교육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턴 국어교육 지도 시 음운규칙에 대한 이해와 지도가 필요하며,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임상교육 현장에서 학습장애 및 언어장애 아동 지도 시 음운규칙에 대한 원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초등학생의 음운규칙 인식수준을 읽기에만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여 음운규칙 인식수준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아 초등학생의 음운규칙 인식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을 제시하는데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추후 연구에는 지역간 편차를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박광일. 2002. 초등학교 국어지식(문법) 교육을 위한 수준별 탐구학습 방법 연구. 미간행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차균. 1983. 음운론의 원리. 서울: 창학사.
- [3] 김기섭. 1999. 영어음운학응용. 서울: 한국문화사.
- [4] 최임식. 1990. 국어 내파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5] 이은정. 1988. 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해설. 서울: 대제각.
- [6] 이호영. 1999.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 [7] 오성애. 200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제 13차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561-567.
- [8] 김태순. 2004. 초등학생의 표준발음 지도 방안 연구: 반침 발음을 중심으로. 미간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9] 윤혜경. 1997. 아동의 음운인식과 읽기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7(1), 389-406.
- [10] 이현복, 김선희. 1991. 한국어 발음검사. 서울: 서울국제출판사.
- [11]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1-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2]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1-2.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3]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2-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4]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2-2.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5]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3-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6]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3-2.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7]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4-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8]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4-2.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19]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5-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20]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5-2.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21]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6-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22]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2004. 국어 읽기 6-2.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23] 국립국어연구원. <http://www.korean.go.kr>.
- [24] 장유경, 김숙현. 2003. 유아의 한글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3), 87-101.
- [25] 박승호, 이문옥. 20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전략에 대한 초인지 중심의 중재연구. *교육심리연구*, 18(2), 211-225.
- [26] 박향아. 2000. 아동의 음운인식발달. *아동학회지* 21(1), 35-44.

접수일자: 2005. 04. 25

게재결정: 2005. 05. 30

▲ 이은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번지 (우: 712-714)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원 청각·언어클리닉
 Tel: +82-53-653-1676
 E-mail: haein14hanmail.net

▲ 석동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번지 (우: 712-714)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Tel: +82-53-650-8272
 E-mail: diseokdaegu.ac.kr

부록 1

독립단어수준			
1	집안	21	목걸이
2	발걸음	22	놀이터
3	검은색	23	군인
4	연안	24	학원
5	믿음	25	음악
6	울음	26	인어공주
7	줄음	27	속삭임
8	국어	28	악어
9	참외	29	단오
10	소꿉놀이	30	옷걸이
11	떡이	31	목욕
12	살림살이	32	직업
13	백악기	33	날알
14	산업	34	볶음밥
15	수줍음	35	문안
16	관용	36	할아버지
17	책꽂이	37	물맴이
18	긱은일	38	근육
19	적응	39	밑들이
20	손잡이	40	웃음

부록 2

문장수준			
1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16	길썩의 민들레
2	물장군을 모두 쫓아 버렸습니다.	17	나비를 잡아 즐까?
3	꽃말을 꽃았습니다	18	똑같은 대답이 들려 왔습니다.
4	햇빛을 받아 생깁니다.	19	나는 달님을 닮았지요.
5	사흘을 굶은 여우	20	사방으로 흩어졌다.
6	두껍아 왜 우니?	21	꽃이 피었네.
7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22	지느러미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8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23	날이 밝았습니다.
9	많이 아팠어요.	24	예쁜 구슬 맺으면서
10	불빛이 새어 나오는 방	25	무엇이 될까?
11	모래밭에 곤두박질쳤습니다.	26	연못 속에 풍덩
12	밥맛이 나지 않는다.	27	단단한 그릇이 되겠어요.
13	옆으로 팍 쓰러졌습니다.	28	길이 좁아서 참 불편해요.
14	처마 끝에 발을 엮었습니다.	29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	큰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30	씩이 돌았네.